

# 추석 농식품 선물 ·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꼼꼼히’ 해야

전북농관원, 내달 20일까지 의심업체 · 통신판매업체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 이하 ‘전북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30일부터 다음 달 20일(22일간)까지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전북지역 특별사법경찰관 22명을 투입해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특산물 등 명절 선물꾸러미와 사과·대추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외국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전북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하는 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통신판매 품목은 6개반, 15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소비자의 추석 명절 선물꾸러미, 제수용품 구입 시 피해방지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에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관원이 제공한 주요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의 원산지 구분방법에 따르면, 국내산 홍삼은 머리가 짧고 굵으며 몸통은 황색이고 다리는 적갈색을 띠며, 중국산은 머리가 약간 길고 가늘며 몸통과 다리 전체가 진갈색을 띤다. 소갈비의 경우, 국내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고 지방의 색이 유백색이며 외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가는 반면, 미국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지 않고 지방의 색이 백색이며 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굵다. 제수용품인 대추의 경우, 국내산은 향이 진하면서 표면의 색이 연하고 꼭지가 많이 붙어 있는 반면 중국산은 향이 거의 없고 표면의 색깔이 짙은 색을 띠면서 꼭지가 붙어 있는 것이 적다. 국내산 밤은 윤택이 나며 알이 굵고 속껍질이 두꺼워 잘 벗겨지지 않는 반면 중국산은 윤택이 거의 없으며 알이 작고 속껍질이 얇아 잘 벗겨진다. 국내산 꽃감은 과육에 탄력이 있고 밝은 주황색으로 꼭지가 동그란 모양으로 꺾여 있는 반면, 중국산은 과육이 딱딱하거나 물렁하고 탁한 주황색으로 꼭지가 네모난 모양으로 꺾여 있다.

표고버섯은 국내산이 갓 형태가 넓적하고 불규칙하며 자루는 깨끗하고 신선도가 높은 반면, 중국산은 갓 형태가 둥글고 일정하며, 자루는 이물질이 붙어 있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

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5~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윤상 기자

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5~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윤상 기자

## 이동호 우정노조위원장 남원우체국 찾아 직원 격려

이동호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은 30일 남원우체국을 찾아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우편물 완벽소통 업무에 매진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동호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은 국민이 기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소포 우편물 소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가 남광건설(주)와 마이스터건설(주)의 공사관계자들과 함께 30일 협회 사무실에서 관내에서 시행중인 민간 건설현장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지역업체 에코시티 레지던스 호텔 신축 참여토록”

전건협 전북도회 · 전주시, 마이스터건설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

전주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가 남광건설(주)와 마이스터건설(주)의 공사관계자들과 함께 30일 협회 사무실에서 관내에서 시행중인 민간 건설현장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전주시와 협회는 금암동에서 주상복합 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남광건설(주)와 에코시티에서 레지던스호텔 신축사업을 시행 예정인 마이스터건설(주)의 공사관계자들에게 해당 사업에 지역업체의 다수참여와 지역재미 및 장비 사용을 적극 권유했다.

간담회에서 전주시와 협회는 합동으로 해당 현장에서의 관내 업체 참여를

강력히 권의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전주시 유상봉 건축과장은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민간건설사업에 우리 지역주인과 관련 업체가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며 “해당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여 지역과 상생하며 코로나19 위축돼 있는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도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건설산업의 효과는 매우 즉각적이며 긍정적이며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상호협력으로 상생·공존하자”고 촉구했다.

앞서 협회와 전주시 건축과 하도급 관리팀은 지난 27일에도 동부건설과

한화건설 본사를 직접 방문해 업무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협회는 전주 지역우수업체 자료를 전달하고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건의하는 등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를 진행했다.

김태경 회장은 “전주시의 하도급 전담부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감사한다”며 “지역전문건설업체의 권익신장 및 임금참작에 협회는 꾸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전주시와 협회는 9월 중에도 관내에서 대형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회사 본사 방문을 예정하고 있으며, 관내 건설현장과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업무담당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하도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전주천을 살리시다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주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 전북인삼농협 끝맛나는 방송

더진란 홍삼정 플러스 240g | 끝맛같은수삼 150g\*2/150g\*4 | 진하루 홍삼스틱 10ml\*30포

## 수삼, 라이브 커머스에서 만나요

### 전북농협, 추석 맞아 라이브 특가로 판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북인삼농협(조합장 신인성)은 어려운 생산 농가를 돕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31일 오후 3시부터 네이버 쇼핑과 농협몰 모바일 앱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로 수삼과 홍삼가공식품을 판매한다.

이번 방송 촬영은 전북지역본부 8층 온라인지역센터에서 진행 예정이며 주문 받은 후 전북인삼농협에서 익일 무료로 제품을 택배 발송할 예정이다.

방송시간 동안 ‘끝맛 같은 수삼’을 정상 판매가 대비 50% 저렴한 가격인 150g 2팩을 2만9,000원, 150g 4팩을 5만7,000원에 500개 한정 판매한다. /김윤상 기자

기존 수삼은 그대로 먹기에는 맛이 쓰기 때문에 꿀 등과 혼용해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반면, 작년 하반기 새롭게 출시한 제품은 첫 맛은 달콤하고 마지막은 수삼 본연의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세척 후 극소량의 스테비아(식물성 감미료)를 첨가 가공 처리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과일처럼 먹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 먹을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건강한 단맛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품이다.

또한, 방송기념으로 홍삼 농축액(57% 환인)과 홍삼스틱(43% 환인)도 4만8,0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2487억... 전년비 59% ↑

신협, 작년말 대비 자산 5.6%  
여신 7.8% · 수신 5.9%

신협이 올 상반기 기준 248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며 전년동기 대비 59%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신협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지난 6월 기준 전년동기(1,564억원) 대비 923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3,831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성과다.

주요 재무현황에서도 고른 성과를 보였다. 신협의 총 자산은 117.2조원, 여신은 85조원, 수신은 105.3조원으로, 작년말대비 자산 5.6%, 여신 7.8%, 수신 5.9% 성장했다.

또한 6월말 현재 신협의 순자본비율은 6.78%로, 전년동기 대비 0.52%p 증가했다. 이는 출자금 확대 및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러 지표에서 보여주는 지속적인 상승세로 비춰 볼 때 연말에는 더 높은 순자본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873조합의 평균 자산금액은 1,341억원으로, 전년말 평균 자산금액 대비 82억원이 증가했다. 자산규모가 1,500억원 이상인 조합 수는 전년말 대비 6조합 증가했고, 300억원 미만 조합은 11조합 감소하면서 소형조합과 대형조합 모두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다. 1,500억원 이상 자산규모의 대형조합은 242조합(27.72%)으로, 전년말 대비 2.54% 증가했으며, 300억원 미만 소형조합은 176조합(20.16%)으로, 전년말 187조합(21.27%) 대비 5.88% 감소했다.

김윤식 회장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결속과 희생 덕분에 성과가 높고 자 노력하는 신협을 찾아주신 조합원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또한 인팍으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20년 연속 흑자경영이라는 쾌거를 거두고, 신협의 경영투명도와 안전성을 높여 보다 자율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서민 금융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전기안전공사, ‘혁신 아이템 마이너’ 운영

### 2030 MZ세대 주축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내 혁신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공사는 오는 9월부터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혁신 아이템 마이너(Mirer)’ 동아리를 운영하고 신규과제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2030 MZ세대가 주축이 돼 자발적으로 공사 혁신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한다(‘mining’)는 의미를 담았다.

‘혁신 아이템 마이너(Mirer)’ 운영단은 혁신우수사례 조사와 신기술 트렌드 공유를 통해 탄소중립과 ESG경영을 업무에 접목하여 추진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박지현 사장은 “위에서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혁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직원들이 스스로 찾은 혁신 아이디어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7월 CEO와 노조위원장, MZ세대 직원 간 안심만족데이(安心MZ Day)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직원들이 중심이 되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윤상 기자